

디스플레이

백팔번뇌(百八煩惱) - 14. 2014년 TV시장, '짹수 효과'는 없다

2013. 11. 27

디스플레이
Analyst 전병기
02.3779-8425
bk.jeon@etrade.co.kr

TV 시장 '짹수 효과', 정말로 있는 걸까?

올해 글로벌 TV출하량은 2억 2,300만대로 2011년 2억 4,900만대, 2012년 2억 3,300만대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이 침체되면서 반사적으로 내년 TV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관련업계 및 언론에서 나오고 있다.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 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2014년이 '짹수 해' 라는 것이다. 짹수 해에는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과 올림픽이 4년을 주기로 번갈아 치러지기 때문에, TV용 디스플레이 성장률도 '짹수 해에 높았다 홀수 해에 낮았다'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 브라질 월드컵 • 인천 아시안컵의 해

2014년에는 스포츠 빅 이벤트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 경기를 좀더 나은 화질로 시청하기 위해 신규 TV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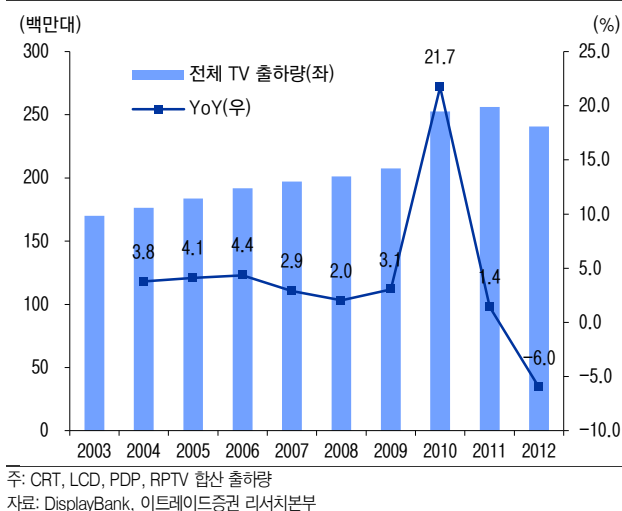
2003년 이후 TV 판매 추이, 큰 변동 없이 우상향 곡선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2008년과 남아공 월드컵이 열렸던 2010년에는 평판 TV 기준으로 각각 출하량 1억대, 2억대를 넘긴 의미있는 해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평판 TV의 고성장 추세 속에서의 자연스런 성장 흐름이었지, 특별히 짹수 해라서 출하량이 급증한 것은 아니었다. TV 출하량 연간 성장률을 살펴보면 짹수 해가 홀수 해 보다 꼭 높다고 말 할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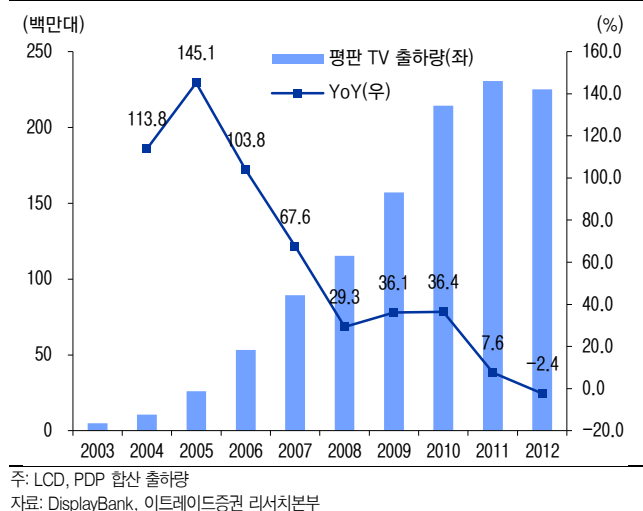
'짹수 효과'라는 건 없다

그 동안의 통계치로만 봤을 때 올림픽과 월드컵 등이 TV 수요를 바짝 끌어올린다는 것은 낭설에 가깝다. 스포츠 이벤트와 TV 수요간의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짹수 해 효과는 제품 공급자의 심리적 기대일 뿐이다. 스포츠 빅 이벤트로 인해 TV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TV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지출이 훨씬 더 크다. 즉, 내년이 짹수 해라는 이유를 들어 TV 수요 강세를 예측하는 것은 지나친 바람이고 기대일 뿐이다.

[그림1] 전체 TV 출하량 추이



[그림2] 평판 TV 출하량 추이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병기)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